

전북대 출신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합격



곽윤지씨 김다슬씨 김성찬씨 박성진씨 선지영씨 이수빈씨 이지영씨 장영준씨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북지역에 배정된 8명 전원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단일 대학에서 해당 지역 배정 인원 모두를 합격시킨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며 8명 합격은 전국 대학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간 이 제도를 통해 꾸준히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전북대가 추천 인원 100% 합격을 달성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두 번째다.

17일 전북대 인재등용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120명 중 전북대 추천자 8명(행정분야 4명, 기술분야 4명)이 포함됐다.

올해 공직 진출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곽윤지(사회학과 10학번), 김다슬(경제학과 13학번), 김성

찬(고분자나노공학과 12학번), 박성진(화학과 10학번), 선지영(무역학과 11학번), 이수빈(독어교육과 09학번), 이지영(분자생물학과 13학번), 장영준(토목공학과 10학번)씨 등이다.

이들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2급 이상, 총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들로 공인 인적성평가와 구술시험 등을 통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1년간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에서 수습근무를 한 후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전북대 박수영 인재등용관은 "대학에서 수험자료와 면접 지원, 합격선배와의 멘토링, 그룹스터디 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대인들이 꿈과 포부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은 전국 지역별 우수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 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으로 2009년부터 선발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이를 통해 총 865명이 각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진출해 근무 중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자치행정과, 나눔 봉사활동 개최

전주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시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지난 16일 행복한 가게와 전주연탄은행 등 전주 자원봉사단체 1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행복한 샌드위치 3,000여개를 함께 만들어, 24개의 장애인단체에 전달했다.

자치행정과는 전주시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7년 시 산하 공무원이 90%이상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전주시 공무원 자원봉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서업무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전문적인 기술을 자원봉사와 접목하여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은행, 반월주공아파트 찾아 사랑나눔 실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17일 전주시 반월동에 위치한 반월주공아파트를 찾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115개 봉사팀이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분기별로 환경정화, 복지시설방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의 추천으로 이날 방문한 곳은 어머니와 두 명의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한 자녀가 중증장애가 있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장학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웃사랑의 정을 나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북은행 영업부 이성란 부장은 "앞으로도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의 일원으로서 변함없는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군산대, 군산수협 수산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열어

군산대학교는 17일 군산대학교 총장접견실에서 군산수협 수산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산계열 우수인재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전달식에는 김광철 군산수협 조합장, 고상근 지도상무, 군산대 니의균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군산수협 장학금은 수산업 및 어촌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젊은 우수 인재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군산수협이 수산계열학과 학생 중 티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전달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해양생명과학전공 염세진 학생 등 12명의 우수 수산인재에게 총 2400만원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군산수협 수산협동조합은 우수 수산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군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산계열 우수 인재들에게 수산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군산수협은 지금까지 군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69명의 수산 인재들에게 총 3억3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대 학생생활관, 2017년도 단청제 개최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관장 이민아 교수)은 학생생활관 일대 및 교내 야외무대에서 '2017학년도 단청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니의균 총장 및 관생 등 160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청제는 대학문화 발전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관생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관생들이 보다 뜻깊은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학생생활관 최대 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관생자치위원회 주최로 이루어졌고, 관생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맞춤형 행사가 되도록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캠퍼스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지도로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행사는 고깔콘 보고 사물 알아보기,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오픈하우스로 시작되었고, 생활관 내에서의 네일아트 등이 주간행사로 진행되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야간 공연에서는 맨스동아리 축하공연, 장기사랑, 레크레이션, 초청공연 등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군산=장 현 기자

김종인 원광대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지원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김종인(정수과학연구소장)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지원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학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수한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확산을 도모하고, 우수학자의 저술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심화연구와 저술 활동 촉진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사회의 연구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인 교수는 앞으로 5년간 '인류가 100세를 사는 사회'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며, 총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희선 전북대 교수, 네이처 발행사 편집위원 재선임

전북대학교 이희선 교수(농생명 생물환경화학)가 세계 최고 저널인 네이처와 자매지 등을 발간하는 'Nature Publishing Group' 편집위원에 재선임 됐다.

지난 2015년 편집위원에 선임됐던 이 교수는 지난 2년간 편집위원으로 수행한 업적에 대해 격려한 평가를 받은 후 다시 초빙됐다.

이 교수는 최근까지 네이처 자매지에 교신저자로 5편의 논문을 연속으로 발표했고 SCI급 논문 300편(상위 1% 논문 60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앞으로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며 네이처나 네이처 자매지에 투고된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논문에 대한 최종 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희선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프링거 출판사 SCI급 저널인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편집위원장, 스킵스 저널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편집위원장, SCI급 저널 'Advances in Chemistry' 편집부위원장, SCPOUS 저널 'Open Bioactive Compound Journal' 편집부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무주농협,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행사 개최

범 농협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행사가 무주읍 전도마을에서 박희영 무주읍장, 이정환 농협무주군지부장, 이금호 무주농협 상임이사, 한대식 전도마을 이장과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사업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단체대표를 지자체에서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동농동업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변병남 씨지방법원장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전도마을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산경찰 효자지구대, 현금다액 취급 업소 총력 점검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대장 박현귀)가 현금다액업소의 절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경찰을 총동원 CCTV, 비상벨 등 총체적 점검에 들어갔다.

효자지구대의 관내에는 대형마트 2개소, 금은방 14개소, 편의점 17개소 등이 있으며 업주들에게 자위방법의식을 주지시키기 위해 절도예방 대처요령과 침입이 용이한 창문 등 취약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이중 시정장치, 쏫 SOS, 강화유리문 등 미설치 업소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무주경찰서-지역 금융기관, 전화금융사기 홍보활동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와 무주군 금융기관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려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17일 무주읍 읍면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관공서(경찰·경찰)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방식이 아닌 고액의 현금을 거리에서 직접 건네받는 변종수법을 이용하는 등, 진화된 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경찰과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

특히 주민들과 접촉빈도가 많은 창구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을 경우 인출중단 협조와 112신고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사제보 288-9700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동북면호 전북 가00016 (우)60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준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효자지사 010-8845-9335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알림

▲제11회 전국장애인 가요제= 일시: 28일(일) 오후 4일, 장소: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남부시장 입구),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접수방법: 전화, 팩스, 방문접수, 상담·접수전화: 063-286-6678, FAX: 287-6676

결혼

▲한운제(한경호·이충심씨 장남)·고은지(고재현 전북도 전국체전준비단장·김미숙씨)양= 일시: 20일(토) 낮 12시, 장소: 웨라튼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연락처: 고재현(010-9402-7903)